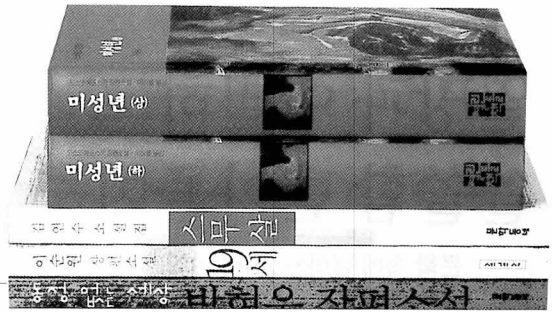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주변인들의 슬픈 초상화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10대와 20대의 삶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 속에는 가죽점퍼와 헬멧, 모터사이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LA부터 뉴올리언즈까지 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마약과 마리화나고 여행경비는 마약밀거래로 마련한 검은 돈이었다. 영화를 보면서 젊은이란 타고난 반항적 기질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굳이 영화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 지금도 궤도 밖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도시 한복판, 문명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전망 없는 세계에서 꿈꿔야 하는 슬픔

문학작품 속에 투영된 10대나 20대들의 모습은 주변인의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잠시 예술인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초년운'의 테두리 안에 갇힌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금 박을 넘겨 다본다. 때론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따위의 점괘에 운명을 맡긴 채 필연을 가장한 우연에 끈을 대보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마냥 무기력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방황하면서 호된 성인식을 치르고 인생의 제2라운드,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 다섯 살입니다." '60년대적 의식의 방황'을 그렸다고 평가받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이렇듯 두 젊은이의 선문답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지은이는 더 할 말이 남았다는 듯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꿈꿈이 생각하는" '나'를 주시한다.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세 사나이의 비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전망 없는 세계를 살아야 하는 삶의 부조리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비현실적인' '부조리함'이란 단어들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그 속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현실과 대결하며 끊임없이 일탈을 꿈꾸는 10대 혹은 20대들의 반항적 기질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그 동안 몸담고 있던 한 세계의 문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지만 막상 스무살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0대의 파릇한 감수성은 미래를 향한 무수한 갈림길에서 좌표를 잃고 무참하게 꺾이기 일쑤다. 오죽하면 소

설가 김연수는 경계 넘어서기의 어려움을 "스무 살이 지나고 나면, 스물한 살이 아니라 스무 살 이후가 온다"고 했겠는가(〈스무 살〉, 문학동네). 시인 김정란이 경계를 넘어선 자의 비애를 "스물 네 살이야. 죽고 싶어"라고 되뇌며 "한꺼번에 달겨들던 죽음"을 향해 "자꾸만 절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했겠는가(〈스물 네 살의 바다〉).

경계 넘어서기의 두려움, 10대를 작품 전면엔 내세운 소설은 경계를 넘어선 자들의 비애

10대를 작품 전면엔 내세운 소설은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무대에 들어설 무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시절의 부대끼는 삶의 부조리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자전적 소설 《미성년(전2권)》(이상룡, 열린책들)에서 이 문제를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으로 그려낸다. 소년의 나이로 시 예술의 절정에 오르고 19세에 벌써 문학을 팽개쳐버린 천재 시인 랭보는 이탈자의 운명을 "삶의 시계가 방금 멎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있지 않다"며 희망보다 절망을, 천국보다 지옥을 먼저 읽어낸다.

열세살부터 열아홉살까지 작가의 자전적 성장기를 담은 이순원의 《19세》(세계사)는 미성년의 혼란이 성년의 질서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남보다 일찍 어른 세계에 매혹된 한 소년의 아슬아슬한 체험은 결국 어른 세계에 들어서는 '입사의식'이자 통과제의다. 하지만 J. D. 셀린저가 《호밀밭의 파수꾼》(공경희, 민음사)에서 보여준 세계관은 이와는 정반대다. 그는 물질적 가치만 내세우는 세상에 염증을 느낀 주인공 홀든을 통해 오히려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주변인의 자화상을 그려 보인다.

그렇다고 주변인들의 삶이 자아와 세계의 대립으로만 점철되는 건 아니다. "한번 하자"로 시작해 역시 "한번 하자"로 끝나는 박현욱의 《동정 없는 세상》(문학동네)은 주인공이 '동정 딱지'를 떼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동정을 떼고 싶어 안달하는 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어른 세계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정을 떼는 순간 주인공의 심리는 '안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뀐다. 그 두려움은 삶의 비의를 알아버린 자들, '주변인 딱지'를 떼 그들이 새롭게 감당해야 할 슬픈 운명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듯 기성세대의 문법을 아프게 체득하며 삶의 한 마디를 통과해가는 것이다. —박옥순 기자